



문화재야행 '달빛걸음' 동구의 숨은 보물을 만나다

옛 전남도청 본관부터 보물 제110호 지산동 오층석탑까지 광주시 동구의 숨은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020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이 오는 7월 3~4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옛 전남도청, 광주읍성유서, 서석초등학교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 동구(정장 임택)가 주최하는 '동구달빛걸음'은 옛 전남도청 본관(등록문화재 제16호)을 비롯해 오지호가(시도기념물 제6호), 지산동 오층석탑(보물 제110호) 등 동구 곳곳의 문화유산·시설을 둘러보며 공연·체험·투어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시작돼 올해로 4년차를 맞는다.

행사는 야간경관 '야경·夜景', 역사투어 '야로·夜路', 전시체험 '야사·夜史', 공연 '야설·夜設', 시설개방 '야화·夜畵', 숙박체험 '야숙·夜宿' 등 6개 테마로 진행되며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 문화재야행도 신설해 운영한다.

지난 15일부터 '동구달빛걸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열리고 있는 온라인 문화재야행은 '온라인 퀴즈열전', '문화재 속 보물 찾기', '사진콘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야경·夜景'에서는 문화재 숲 정원 '구름물고기'와 경관조명 '달빛로드'를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나무 정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구름물고기'는 대나무정원에 한지 등(燈) 작품을 설치해 선보이는 전시이며 '달빛로드'는 서석초등학교 앞 차없는 거리, 광주읍성로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 관객들을 초대한다.

'야로·夜路'는 광주문화재 야행 인물살롱과 이야기꾼의 광주문화재 산책으로 구성됐다. 인물살롱 시간에는 춘설현, 오지호 자택, 광주읍성과 풀리 등에 대해 허탈재 화백, 조인호 광주미술연구소 대표, 천득염 전남대 석좌교수,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이야기한다.

이야기꾼의 광주문화재 산책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역사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빛나는 야행,

옛 전남도청·서석초교 일대서

7월 3~4일 오후 6시부터 열려

야경·야숙 등 6개 테마 진행

26일 모집 마감...온라인 행사도



2020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이 오는 7월 3~4일 옛 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특별전 '구름물고기' 모습.

광주 뷰 폴리 투어', '두걸음, 동 밖에 마실길 투어', '세걸음, 오월시간여행', '네걸음, 이야기마당-오월', '다섯걸음, 동구 이야기꾼의 문화재 이야기', '자유투어, 관악역 문화재 투어' 등 총 6개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시체험 '야사·夜史' 시간에는 이춘봉 악기장(무형문화재 제12호)의 가야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조기중화류소목장(무형문화재 제13호)의 작품도 전시된다.

또 마을명장, 장인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며 동구의 문화재를 영상과 강의로 만날 수 있는 광주문화재 야(夜)학 시간도 마련된다. 지산동 오층석탑을 3D 입체 퍼즐 등으로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달빛공방, 끈기를 통한 이색기부로 연대와 나눔의 광주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야행 등도 열린다.

'야설·夜設'은 다큐연극 '오지호', 음악낭독극 '오월', '문화재 별별극장'으로 구성됐다. 극단 Free가 빛의 화가 오지호를 주제로 하는 다큐연극 '오지호'를 선보이며, 씨쏘무지킴컴퍼니가 오월을 주제로 하는 음악낭독극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문화재 별별극장'에서는 샌드아티스트 주홍의 샌드아트 '광주다움'을 비롯해 최성욱 감독의 '그해 오월'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옛 전남도청 본관과 회의실, 전일빌딩,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야간에 만날 수 있는 '야화·夜畵', 정공소리, 신시와 등 6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야숙·夜宿'도 열린다.

'동구달빛걸음' 기간에는 은암미술관, 비움박물관, 미로센터 등도 개방되며 '달빛걸음 즉석사진관', '광주문화재야행 느린역사', '코레일과 함께 하는 광주문화재 야행열차'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08-88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수미술관 '작가, 비평가 1:1 매칭 전시'

22~7월 6일...작품·비평문 함께 전시

22일 작가·비평가 토크, 강연도 열려

'이슈가 있는 젊은 미술관', '동시대 예술 담론의 공간'을 목표로 개관한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 조선대 교수)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비평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예비 비평가들이 직접 작가를 선정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고,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이다.

산수미술관이 '작가와 비평가 1:1 매칭 전시 - Value impact : on criticism'을 22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조선대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4학년에 재학중인 임여름·박선정·정예은·김희선 예비 비평가들이 이정기·윤세영·박상화·정승원 작가의 작품 16점을 선정해 전시하고, 비평문을 동시에 선보인다.

임여름 비평가는 유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인에 주목하며 역사적 표현,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이정기 작가의 작품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잊혀진 것들을 재조명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선정 비평가는 윤세영 작가의 '생성 지점' 시리즈가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객들이 에너지를 얻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분석한다.

미디어아트를 통해 일상의 모습 속 자연을 병치시켜 무릉도원이 상상의 장소가 아닌 내 삶터와 연결되는 풍경임을 제시하는 박상화 작가의 작품에 주목한 정예은 비평가는 위로와 휴식을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관람객들과의 깊은 교감과 소통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승원 작 '크리스마스마켓'

또 김희선 비평가는 야광 물감이나 모빌 등 독특한 기법을 사용해 유쾌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정승원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개막 행사로 22일 오후 6시 참여작가와 비평가가 함께하는 'Artists & Critics' Talks가 열리며 조사라 박사(미술비평가)가 참여해 '동시대 미술비평'을 주제로 짧은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전남대, 광주대 등 타 대학 희망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010-9628-324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권예슬 작가 개인전 '치유의 파동'

7월 2일까지 금호갤러리



▶ '각자도생'

한국화가 권예슬 작가 개인전이 오는 7월 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전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초대전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치유의 파동'이다. 선인장을 소재로 작업하는 권 작가는 고립감에서 파생되는 여러 감정의 파편들을 선인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작가는 유연히 들뜬 카페 한 구석에 놓인 선인장의 모습에서 평소 외면하며 지나쳤던 외로움과 고독한 감정들을 느꼈고, 그 감정들을 표현해냈다. 작품에서 보아지는 다양

한 모습의 선인장은 현대인들의 삶이 외롭고 치열한 것임을 알려준다.

작가는 "선인장은 지나간 과거의 외로움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이 과거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을 거쳐 어찌하면 미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의 변주곡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권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은희 작가 세 번째 개인전 '하늘 사이'

23~30일 양림미술관...자작시 35편도

그림과 시가 어우러진 전시회가 열린다.

김은희 작가 세 번째 개인전이 23일부터 30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하늘 사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그림과 함께 작가가 직접 지은 시를 함께 선보인다. 전시명 '하늘 사이'는 하늘과 작가 사이에 마주한 풍경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이'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마주하다' 시리즈는 5년전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영감을 얻어 작업해

오고 있는 연작이다.

섬 안의 섬이라 불리는 가파도의 보리밭 풍경과 제주 곳곳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은 구상적이면서 미니멀한 기법으로 하늘과 바다, 때로는 언덕, 집, 밭 등을 감성적 색채와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색과 단순하고 넓은 구도를 통해 색다른 조형성을 보여주는 작가는 변화하는 날씨와 하늘에 따라 전체적인 색감, 분위기가 바뀌는 제주 하늘의 매력을 담아냄과 동시에 어린 시절 위로를 받았던 하늘의 모습까지도 함께 묘사하려 했다.

'화가의 마음 공간'이라는 부대 전시를 통해 자



'마주하다'

작시 35편도 함께 선보인다. 항상 기록해 두었던 일상 속 느낌, 성찰 등에 대한 글을 모아 계절, 인생, 사랑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눠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